

대학내 자생적 실험문화의 장을 열자

조 혜 정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공중파 음악회 유치 경쟁을 하는 대학을 보면 대학이 보인다?

열마 전까지만 해도 “전체를 보지 않으면 부분을 아무리 보아도 제대로 상황을 볼 수 없다.”는 구조기능주의적 전제가 인문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분을 제대로 보면 전체가 보인다.”는 새로운 관점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대학에서 열리는 ‘열린 음악회’나 ‘청소년 음악회’ 등의 작은 행사 하나에 대학 문화와 대중 문화와 한국 문화의 모습이 들어 있는 것이다.

KBS의 열린 음악회와 MBC의 청소년 음악회 등이 최근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열렸고, 간혹 그 행사를 유치하려고 돈을 쓰는 대학도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런 사건 또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 그 속에 ‘문화’의 불모지인 대학 캠퍼스가 보이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협에 처해 있는 영세한 대학들이 보인다. 또한 그 행사 속에는 질보다 양에 승부를 거는 현 공중파 방송의 생리와, 고등학교건 대학 캠퍼스건 수시로 파고 들어가는 공중파 방송국의 거침없는 모습이 들어 있다. 그런 행사가 치러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대학에 대학인을 위한 공연 문화란 없으며, 대학인으로 형성된 특정한 취향을 가진 관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공중

파를 타지 않고는 널리 홍보할 길이 없다고 느끼는 무능한 대학 당국과, 그러한 취약한 상태를 한껏 이용하는 공중과 방송 관련자들의 실리주의를 본다.

2. 대학생 중심의 공연 문화가 있는가?

물론 대학생들이 공중과 녹화 과정을 한번쯤 경험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특히 대중 공연 예술이 지니는 쌍방적인 교류를 무시한 채 S여대에서 있었던 일처럼 일방적으로 관객들에게 ‘박수를 쳐라’, ‘소리를 지르라’고 요구했다거나, K대 50주년 기념 음악회의 경우에서처럼 관객보다 녹화방송 위주로만 생각해서 자신들의 녹화가 끝났다는 이유로 가수의 앵콜곡을 무반주로 부르게 하고 가 버렸다는 등의 뉴스(『대학문화신문』, '96년 9월 24일자 6쪽, ‘문화 리포트’, 오광근 기자)를 접하면서 관객을 소외시키고 장소만을 빌리는 식의 음악회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대학의 공연 문화에 대한 반성이 뒤따른다면 말이다. 적어도 그런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은 대중매체와 공중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토론을 시작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음악회가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여는 문화 행사의 일부분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만일 대학생들이 원하는 음악회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 공중파에서 인기를 끄는 열린 음악회와 같은 음악회와는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차별성이 없다면 한국의 대학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생을 포함하여 4천만이 다

좋아하는 음악회’, 말만 들어도 전체주의적 폭력성이 느껴지지 않는가? 분명 대학생들이 원하는 음악회가 있을 것이며, 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생 집단이 이미 상당히 분화되어 있는 만큼,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음악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난 가을 ‘음반 사전 심의 폐지’ 결정을 자축하며 열린 ‘자유’라는 이름의 록 콘서트라든가 그에 이어 대학 순회공연을 벌인 ‘자유 2’와 같은 대형 기획 음악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대학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린 작은 음악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연세대에서는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자생적인 문화제를 치렀는데, 이 “96 백양로 난장’ 행사의 일환으로 동문 중심의 음악회를 열었다. 대중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동문과 재학생들, 그리고 지금은 음악을 떠나 의사로, 학자로 활동하는 ‘지난날의 캠퍼스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런 음악회는 그 구체적 대학이 가진 역사성과 실험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제이다.

물론 이런 음악회가 딱히 대학생 ‘대중’을 동원하는 대형 음악회일 필요는 없다. 빛나는 계절인 봄과 가을에 캠퍼스 곳곳에서 점심시간에 펼쳐지는 작은 음악회들이 대학인들의 감성을 자유롭게 할 것이며, 새로운 공연 예술의 실험 정신을 북돋울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대학이 이러한 다양한 감수성과 취향을 가진 이들의 문화적 실험의 장이 되지 못한 채, 극단적 매너 문화나 문화적 주체가 없는 공중파 상업주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린 음악회의 유치 경쟁 현상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대학의 홍보 문제를 살

펴보아야 할 것이고, 상업 대중문화의 대학 내 침투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대학생 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군림하는' 주류 방송국이 문제라면 공중과 중심의 대중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3. 대학 당국과 공중파 방송 : 21세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미 이웃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대학인들에게 '좋은 시절'은 다 갔다. 학자라면 무조건 숭상하고 '무풍지대'에서 고고하게 살던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던 시대는 갔다.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헉헉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가들에게 면박을 당하고 있고, 대중매체에서도 '대중'과 유리된 지식을 생산하는 상아탑을 외면하고 독주하기 시작했다. 대학은 이제 본격적인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게 되었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보가 중요해진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입에서 입으로 여론이 형성되던 때와 달리 고도의 정보 통신 기술에 의존하는 광고 상업주의 시대로 접어들면 대학들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이때 공중과 방송의 위력은 대단하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처럼 시민사회가 부재하고 다양한 채널의 의사소통과 정보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중과 텔레비전의 힘은 막강하다. 대중가요를 다섯 번만 들으면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기억하게 되듯이, 공중파를 타면 '이름

없는' 학교도 쉽게 이름을 갖게 되고, 잊혀지던 대학도 동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좋은 학생들을 끌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고, 존속의 위기에 처한 영세 대학들은 우선 그들의 이름을 기억시키기 위해 홍보 전략을 짜야 할 판에 있다. 그런 면에서 '고상한'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열린 음악회를 유치하면 전국에 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기억될 확률을 확실하게 높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열린 음악회 유치 경쟁을 벌인 대학의 홍보 담당자들은 말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한 이들일지 모른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얼마나 소극적인 홍보 방식인가? 열린 음악회라고 불리는 두루뭉실한 '국민 음악회'를 유치함으로써 자신을 홍보하려는 대학이라면 분명 무엇인가 그 수준에 문제가 있다.

실제로 대학 당국은 이제 제대로 된 인물을 길러 내기 위한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능력 있는 홍보 전문가와 문화 기획자들을 고용해야 한다. 홍보처는 과대 포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리는 일을 맡은 부처이다. 열린 음악회를 유치해서 자신의 대학을 알린다거나 자기 대학 출신 재학생 중에 유명한 텔런트가 있으면 그를 내세워 홍보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유명한 텔런트를 '대중'의 주의를 끌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주목을 끌어서 실제로 '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보처나 대외 협력처나 장기 발전처의 예산과 인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대외 협력실이나 장

기 발전 기획 부처는 21세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녔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대학생들의 마음을 읽어 내면서 대학생 문화 형성을 위한 기획을 해낼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은 경제 개발을 위해 혼을 팔았고, 예술적 감수성도 팔아 버렸다. 이제 다시 예술적 감수성과 멋과 흥을 되찾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여전히 회사나 사회는 사람들을 심하게 몰아치고 있다. 대학만이 그나마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편인데, 그런 조건에 비하면 아직 적극적인 문화 실험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획일적 통제 교육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런 면에서 문화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중과 방송계에서는 이러한 통제적인 획일 문화에 틈을 내기 위해서라도 대학에서 일고 있는 작은 실험적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건강한 대안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움직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와 공연 예술을 만들어 가려는 젊은이들을 대학에서조차도 찾아볼 길 없는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딱 짜여진 직업을 마다하고 대학 주변을 맴돌며 실험적

문화 생산을 위해 몰두하는 동문이나 선배가 없는 사회의 문화 산업의 수준은 기대할 것이 없다. 원자화된 소극적 문화 소비자들과 그들의 자투리 시간을 무작정 잡아먹는 거대한 주류 매체만이 있는 현재의 문화적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 변화를 위해 대학 당국과 공중과 방송계는 손을 잡아야 한다. 특히 거대주의를 벗어나야 할 것이며, 대학 당국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최근 캠퍼스를 실험적 문화 현장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점심시간과 토요일 오후, 자유로운 실험정신이 마음껏 펼쳐지는 대학 캠퍼스 안에 바로 한국 사회의 미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

조혜정/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조리 대학에서 석사학위, UCLA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남성과 여성』,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1, 2, 3권),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등이 있고, “통일의 문화적 차원”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